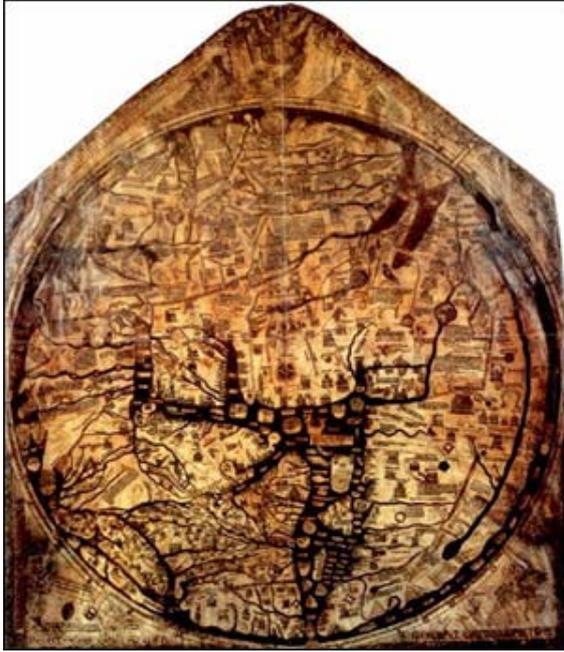


■ 근대성 신화의 파괴¹⁾

산티아고 카스트로 고메스(Santiago Castro Gómez)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이론에서 식민주의 비판은 이미 위대한 전통을 자랑한다.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 호세 마르티, 호세 엔리케 로도 등의 ‘고전적’ 라틴아메리카 사상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멕시코의 에드문도 오고르만, 로돌포 스타벤아젠, 파블로 곤살레스 카사노바의 작업에서부터 에콰도르의 아구스틴 쿠에바스, 콜롬비아의 오를란도 팔스-보르다, 브라질의 다르시 히베이루의 기여와 아니발 핀토, 루이 마우로 마리니,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와 기타 이론가들의 수많은 작업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르만의 『아메리카의 발명』(La invención de América, 1958)과 팔스-보르다의 『과학과 식민주의』(Ciencia propia y colonialismo intelectual, 1971)를 제외하면 식민주의의 인식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작업은 극히 드물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가들의 대다수는 식민주의의 경제적·역사적·정치적·사회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민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지

1) 이 글은 콜롬비아의 철학자 산티아고 카스트로-고메스(Santiago Castro-Gómez)의 「꼭두각시들을 위한 (포스트)식민성: 근대성, 식민성, 그리고 지식의 지정학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시각」([Post]Coloniality for Dummi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on Modernity, Coloniality, and the Geopolitics of Knowledge)에서 엔리케 두셀 관련 부분을 필자의 허락을 얻어 옮긴 것이다. 마벨 모라냐, 엔리케 두셀, 그리고 카를로스 A. 하우레기가 편집한 『고삐 풀린 식민성: 라틴아메리카와 포스트식민주의 논쟁』(Coloniality at Large: Latin America and the Postcolonial Debate, 2008)의 269~273쪽에 실린 글이다.



헤리퍼드 세계도. 중세의 세계관이 담긴 지도

않는 인문과학의 분과학문 패러다임에서 식민주의에 접근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주의의 인식적 핵심을 강조하는 작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철학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철학자 엔리케 두셀의 작업, 특히 유럽중심주의 비판을 말한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핵심인 인식론적 유럽중심주의 비판은 사실 두셀의 해방철학에서는 늘 주요 문제였다. 1970년대에

두셀은 근대 주체 철학이 정복의 실천 속에서 구체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서구 형이상학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아, 두셀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비롯해 근대 유럽의 그 어떤 사상도 사상이 일상의 삶—“생활 세계”—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성적 주체와 지식의 대상 사이의 관계와 같을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두셀에 따르면, 근대 사상이 창조한 바로 이런 주체-대상의 관계가 유럽의 ‘전체주의화’ (totalization)를 설명해 준다. 그 관계가 시작에서부터 지식의 교환 가능성, 또한 다른 문화의 지식 생산 형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오직 외부성과 비대칭에 입각한 관계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문명의 핵심적 특징인 ‘전체성의 존재론’은 유럽 문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외재성’)을 ‘존재의 부재’와 ‘야만성’, 다시 말해 ‘문명화’될 필요가 있는 자연

상태로 본다. 이리하여 타자성—인식론적 타자성을 포함하여—의 제거는 ‘전체주의 어록’ (totalizing logia)을 구성하고, 16세기부터 스페인 정복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크레올 후손까지 이 어록을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인에게 강요했다.

두셀이 해방의 포스트식민주의 사상에서 수행한 첫 번째 중요한 과업은 유럽의 비유럽 식민 지배를 가능하게 만든 존재론의 ‘파괴’ —하이데거적 의미에서—다. 두셀은 오직 ‘전체성의 폐허에서만 라틴아메리카 철학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었다’ 고 말한다. 1970년대 후반, 두셀은 자신의 기획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괴해야 한다. 한동안 라틴아메리카 철학은 유럽중심주의의 벽을 파괴해야만 했다. 그래서 파괴로 생긴 구멍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다. [...] 우리 자신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범주들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유럽인처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유럽의 한계를 드러내고 유럽중심적 사상을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유럽과 대화하고 그들의 사상을 아주 깊이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이라는 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그 벽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다.

하지만 최근 두셀은 그의 이론을 창조적으로 재정식화하기 시작했다. 파괴할 필요가 있는 ‘벽’은 더 이상 하이데거에게 빌려온 ‘존재론적 전체성’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이 아니라, 유럽중심적인 근대성 신화라는 이름의 ‘패러다임’이다. 두셀에 따르면, 이 신화는 아메리카의 발견과 더불어 출현해서, 그 이후 근대성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실천적 이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했다. 흥미롭게도 이 부분은 사이드의 생각과



유럽중심적 세계관

유사하다.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두셀은 근대 식민주의가 그리스에서 유래하여 서구 역사 내내 이어진 ‘사유의 구조’에서 출발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두셀은 이런 메타역사를 포기하고, 근대 식민주의를 윤리적·인식론적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셀은 18세기부터 근대성이 자신의 기원에 대한 유럽중심적 신화를 발전시켰다는 새로운 테제를 제시한다. 이 신화에 따르면, 근대성은 전적으로 유럽적인 현상이고, 중세에 발현되어 이탈리아 르네상스, 종교개혁, 프랑스 대혁명 등의 유럽적 경험을 거쳐 필연적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유럽은 기술과학적 합리성의 발전을 가능케 한 고유한 내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타 지역에 대한 유럽의 문화적 우월성을 말해준다. 유럽중심적인 근대성 신화는 이렇게 유럽의 개별성을 보편성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이 점이 근대성의 신화가 사회적·정치적·도덕적·기술적 해방의 성취라는 목표와 함께, 두셀이 ‘발전주의의 오류’—이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도시는 유럽이 만든 ‘발전 단계’를 따라야 한다—라고 부르는 것을 수반하는 이유다. 즉, 유럽 문명은 세계사의 ‘목적’ (telos)이 된다.

이러한 지배적 해석에 대응하기 위해 두셀은 대안적인 모델을 제안한다. 두셀이 ‘지구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대성은 세계체제의 ‘중심적’ 문화에 불과하며,

16~19세기에 여러 유럽 국가가 그 중심성을 경영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근대성이 유럽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전 지구적 현상임을 의미하며, 그 정확한 출현 시기는 1492년 10월 12일²⁾이다. 두셀은 설명한다.

근대성은 독립적 체계인 것처럼 간주되는 유럽에 기반을 둔 현상이 아니다. 단지 중심으로서의 유럽에 관한 현상일 뿐이다. 이 단순한 가설은 근대성의 개념, 기원, 발전, 현재의 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는다. 그리고 그 결과 후기 근대성(late-modernity)과 포스트-근대성(post-modernity)까지 바꾸어 놓는다. 이에 덧붙여 나는 다른 생각도 도입하고 싶다. 세계체제에서 유럽의 중심성은 중세에 축적된, 다른 문화에 대한 내적 우월성의 결과가 아니다. 유럽의 중심성은 오히려 아메리카의 발견, 정복, 식민화, 편입(복속)의 결과다. 이 단순한 사실이 오스만 튀르크-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에 대한 상대적이고 결정적인 이점을 유럽에 제공했다. 근대성은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럽으로 하여금 세계사의 “성찰적 의식” (근대 철학)과 같은 무언가가 되도록 한 것은 바로 세계체제 내의 중심성의 경영이다. [...] 심지어 자본주의조차도 유럽의 전 세계적 팽창과 세계체제의 중앙집중화 사이의 결합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러한 대안적 패러다임은 지배적인 시각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지배적인 시각에 따르면, 아메리카의 정복은 근대성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다. 종교개혁, 새로운 과학의 출현 혹은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순수하게 유럽 내부의 현상만이 근대성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가운데 어떤 것도 스페인과 스페인의 해외 식민지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근대성의 외부라는 것이다. 두셀은 윌러스틴을 차용하면서, 유럽의 근대성은 구체적으로 16세기 스페인의 영토 팽창으로 구축된 물질성 위

2) [역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달한 날짜.

에 세워진 것임을 보여 주었다. 스페인의 영토 팽창은 새로운 시장의 창설과 새로운 원자재와 노동력의 편입을 야기했다.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의 본원적 축적’ 이라고 부른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근대 세계체제는 ‘중심부’로서의 스페인과 ‘주변부’로서의 히스패닉 아메리카가 동시에 형성되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근대성과 식민주의는 상보적 현상이다. 식민주의 없이 근대성이 있을 수 없고, 근대성 없는 식민주의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서양 너머의 식민지가 주변부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유럽도 세계체제의 중심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두셀이 윌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을 밀접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상세히 살펴보면 두셀이 단순히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의 틀 내에서 식민주의 비판을 ‘전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두셀은 윌러스틴을 해방철학의 관점에서 ‘읽고’ 있고,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성 논의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마도 두셀이 윌러스틴에서 가장 명확하게 ‘벗어난’ 지점은 세계체제 최초의 주변부로서의 아메리카 편입이 중심부 국가의 ‘본원적 축적’ 가능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질서 최초의 문화적 징후를 창출한다는 데 제일 것이다. 윌러스틴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지문화’ (geoculture)의 출현이다. 이는 세계-근대성(world-modernity) 최초의 지문화, 즉 팽창하는 세계체제에 속하는 의식적(儀式的)·인지적·법적·정치적·윤리적 상징의 체계가 확대된 지문화의 진원지가 스페인임을 의미한다. 16~7세기의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세계체제에 대한 기여는 윌러스틴의 믿음처럼 노동력과 원자재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성의 인식적·도덕적·정치적 토대 구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두셀은 근대성이 두 개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근대성은

16~7세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두 나라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꽃을 피운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기독교적 에토스다. 이 근대성은 세계체제 최초의 헤게모니 권력이었던 스페인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경영되었다. 이는 근대성에 대한 최초의 비판 이론은 물론 최초의 근대적-식민적 주체성을 발생시켰다. 두셀은 엠마누엘 레비나스로부터 차용하여, 매우 철학적인 용어로 이 주체성을 개념화하여 ‘정복하는 자아’라고 묘사했다. ‘타자’ (원주민, 흑인, 그리고 메스티소)에 대한 배타적 지배 관계를 수립한 전사와 귀족을 이르는 용어다. 두셀은 첫 번째 근대성의 정복하는 자아(ego conquiro)가 두 번째 근대성의 ‘생각하는 자아’ (ego cogito)의 원사시대(原史時代, protohistory)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스스로를 유일한 근대성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대성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스페인이 붕괴하고 새로운 헤게모니 권력(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리고 프랑스)이 출현하는 17세기 말에야 등장했을 뿐이다. 세계체제 중심성의 경영은 이제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막스 베버와 푸코가 경탄스럽게 묘사한 것처럼 효율성, 삶정치(biopolitics), 그리고 합리화라고 하는 지상명령에 응답한다. 그리고 진화한 주체성이 부르주아지의 출현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형성에 상응한다.

산티아고 카스트로 고메스 - 콜롬비아 하베리아나 대학교 교수

이 글을 번역한 김종규는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